

마음이 너그러워야 몸도 너그러워지고 가정도 편안해집니다

29면에서 계속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나로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생각을 하고 바깥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라 이겁니다. 그럴 때 누가 어디 서야 옳을지 어떤 걸 해야 옳을지 그것이 나옵니다. 답이. 답이 나오는 것도 사랑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믿질 마세요. 모든 거는 그놈이 하는 건데,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 이소립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야 된다. 귀가 뜨여야 된다 이소리는, 모든 바깥 경계를 잘 봐서, 내가 개전에 받을 때에 놔두고 개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돼 있고, 그럴 때에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때는 것이 법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문자답을 하니가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 거기다 놓으세요. 이거는 포괄적인 마음이다 이겁니다. 한마음, 이 주인공에다가 아주 진심으로써 거기다 맡겨 놓으면서 생각을 딱 해 보면은, 바깥 경계와 안 경계를 다 잘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로 법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가다 보면은 이진 걸음이 점점 점점 빨라져요, 걸음을 못 견디다. 그게 실험이 체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접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정말 그럴까? 이럴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너는 나 너는 나라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가 한테도 돌로 보고, 이거는 아주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무조건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수억 광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진화시킨 그 주인을 어떻게 믿지 않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믿고, 이 걸 깨치지 못해도 진짜로 믿고 거기에 놓고 생각하면은,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질 못하고 '응, 한마음 주인공에다 놓고 하라니깐 뭐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니까 진실히, 한 달이라도 아주 굳건히 자기를 믿는 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업보가 두터우면은 생각하는 것이 자꾸 비양심적으로만 생각이 가고, 자꾸 마음이 두꺼워지죠. 왜냐하면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모든 것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마음, 이 수억 개가 보살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건진다면은 바로 그냥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도 리드해 나가면서, 커버해 나가면서, 레이더망이 모든 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체크해서 책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누진이 말입니다. 이 두뇌에서,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두뇌에서, 또 무선통신기로서 다 사대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도 통신하고 안으로도 통신하고, 체크하고 결정짓고 이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대천세계하고도 이진 직결이 돼 있어요. 일체 모두가 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간 순간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하시지만 저희 중생들은 다가올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

이 닦았다 하면은 공용으로, 그냥 생각을 공용으로 하고, 조그만 거라도 공용으로 하세요, 그냥.

그래 한생각이면 그저 내일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생각을 하면 내일까지도 가고 모래까지도 가고 이렇게 그냥 가다가 생각이 나면은 하시란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그냥 애타고 조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 몸만 병나지 애당초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러고서 속이 타면은 제삼자더러 자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뭐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신경질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일 살 거는 내일 걱정을 하고 오늘 살 거는 오늘 한생각으로 그냥 해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어떤 때 내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거든요. 전 그렇게 미리미리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일 모래 할 건데도 오늘 그

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 들리기 싫어 걸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아직도 자식에 대한 착이 많나 봅니다. 이 착이 딱 떨어질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모든 것을... 착을 떼라는 건 '그도 주인공 있고 나도 주인공 있으니까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탁 말겨 놓으면 때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좋은 말을 해 주고, 또 아주 만나면은 자식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 없이,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바로, 바깥에서 추우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망한 자식을 뺏어도 아주 나중에는 효자로 충성하고 아주 정의 정당하게, 정말이지 인간의 그 진리를 알아서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는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로 목은 빛값고 아래로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보시죠. 야, 자식들을 길러 놓으면 그렇게 부모는 100%를 다 줄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있고 잘못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식은 그렇게 부모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고 또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생각 마시고 '으레 그러려니. 나도 자식 노릇을 했더니 그랬더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착을 그렇게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그렇게 없지만 그냥 100%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 장가들고 이렇게 나를 버렸느냐 하는 그 '배신했다' 또 나쁘게 '전 잘지 않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그 귀여운 자식을,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아요

문) 저에겐 이복 언니가 있는데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밍고 안 좋은 마음만 내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결혼하고 떨어져 살아서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 건지요?

답) 내 한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모든 내 몸속의 의식이 한데 한마음으로 뭉친 거고 우주하고도 같이 이렇게 뭉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발전소에다 모든 것을, 그 불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거기 맡겨서 태우세요. 생각나는 대로 '어유, 둘이 아닌데, 뭘, 둘이 아닌데. 너 모든 게 이렇게 있어버리고 지워 주는 것도, 녹여 주는 것도 그냥 둘이 아닌 까닭에 녹여질 수 있잖아.' 하곤 그냥 그렇게 놓으세요. '둘이 아닌 까닭에 녹여질 수 있잖아.' 하고요.

슬플 때가 있더라도, 생각이 난다고 걸리지 마시고요, 생각이 나질랑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하세요. 하되 거기서 '둘이 아닌데... 우리 한 식구가 돼서 산 것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이 세상만사가 전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치인데, 그러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녹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그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정말 진짜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웃고 사세요

그냥 막 우그러져서

즉, 조상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이 남가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펴야지,

우물쭈물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는

퍼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늘을 열심히 살라 하시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사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쓸데없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그저 살아오던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가도 뭐를 봐야 한다.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동서로 가야 되나, 남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이런 것도 보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 24시간에 우리에게 해당한 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벌써 낚새가 옵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이 옵니다. 이 뜻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 오면 어찌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생각으로 그냥 공식으로 해 버리라 이겁니다. 한생각으로 공식으로 해 버리라. 살생이 닦쳐를 때는 공생으로 해 버리고, 또 근심이 닦쳐를 때 공심으로 해 버리고, 또 무슨 몸의 해로운 일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일에는 그저 공제로 해 버리시고요, 그러고서 무슨 일

냥 한생각으로 그냥 몽그뜨려 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날이 닦쳐오면 그 날 그냥 닦쳐오는 대로 이 아래 분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거요,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걱정하고 잡수지 마세요. 그저 편안히 하고 잡수시면은, 먹을 게 없어서 한 말 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나 요력하고 잡수시고 그러면은 만날 한 말이 되다가 닦 되도 되고 한 되도 되고 이래요. 그렇지만 걱정 없이 그렇게 관하시고 사신다면은 한 가마가 생겨요. 그렇게 사세요. 이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너그러워지고 몸이 너그러워지면 가정도 편안해져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게 굴면 못 견딜 일이 자꾸 생겨요. 정말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살짝 배신감이 들어요

문)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던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살짝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하고 좋은 말을 해 주고, 밍다 곱다 이런 것도 생각 말고 그저 만나면 좋은 말 해 주고 '예! 굼치나 않고 닦냈나? 나가서 며칠 밤이 됐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잘이나 먹었는지, 굼치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리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이렇게 아단을 치시지 않고 좋은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바로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을 해 준다면 그게 금방 고쳐집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밍더라도 여기다 꿩쳐요, 여기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맡겨 놓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언다 내보도 땀땀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유자재하면서 아래로는 자식을 새 빛을 줄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를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 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 x 29cm)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툄타레전사자 / 원기동전사자



3x6사군자 (7.4 x 14.5cm)

3x6식물성사군자

3x6연꽃나비A

3x6연꽃나비B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 x 29cm)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가공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아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진화상담 : H/P 010-3786-0242

